



李 大 燁

〈國會議員·交遞委員長〉

기초과학 육성으로 정보화사회를 구현

바야흐로 이제 21세기를 눈 앞에 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타개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를 향해 탈바꿈을 시도하는 일대 변혁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의 통신분야도 지난 수십년간 이룩해낸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완벽한 정보화사회를 구조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꿈으로만 여겨지던 정보화사회가 실현된다면 이는 우리의 모든 존재양식을 바꾸어 놓는 일대 전환점이 걸려있다고 해도 좋을 만한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화사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정보화사회의 모습을 창출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과제들을 관련분야의 법제를 마련하고 추진시키는 일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화사회를 바람직스럽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의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첨단 응용과학인 정보통신분야도 기초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성과를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분야의 원천기술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다 이러한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원천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될 국가적

정보시스템에 독자적 운용을 크게 방해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아니더라도 21세기의 세계무대에서 주역으로 성장하고, 독립적으로 활약하려면 국가적·사회적 정보시스템의 독자적 개발·운용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높은 해외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고 기초·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원의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둘째로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대학의 연구소나 연구시설은 거의 보잘것 없으며 그나마 정부에서 주도하거나 혹은 기업에서 운용하는 연구소가 몇몇 있을 따름인데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흐름을 한 두 곳으로 집중시키는 폐단을 가져온다. 정보의 집중은 부의 집중만큼이나 전사회적 폐해를 야기할른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기업-대학,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제장치도 충실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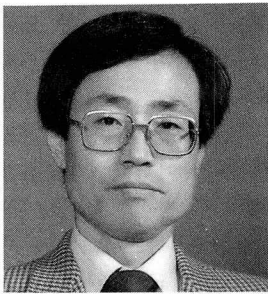
세째로, 정보화사회가 실현됐을 때를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제반 관련된 법제를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자칫 정보의 독점적 폐단이 발생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입을 수 있는 우연적·필연적·피해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서히 검토,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사회로 가는 바람직한 방향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자칫 독주로 흐를 때, 민간부문은 소외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예기치 못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또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화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정하는데 참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정보처리시스템을 중앙집중방식으로 처리하려는 발상을 제도수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중앙집

중식 정보처리방식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보의 분산처리방식의 정비를 위한 법제적·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는 바야흐로 도래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보체계가 될 것이며, 지방정치시대·지방문화시대를 만개시켜 전국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모름지기 정보는 흐름이며 이 흐름이 정보화사회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朴 相 暉

〈연세대학교 교수〉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복되고 풍요로운 사회

정 정보화사회는 문자, 기호, 도형 및 수치 등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의미를 부여한 정보를 축적하여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로 볼 수 있다. 대량소비에서 한 걸음 나아가 탈공업화 사회를 추구하는 인류의 노력이 점차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에 치중하게 되었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농업사회와 공업사회에서는 생산요소로서의 토지, 노동, 자본이 유한하고, 동시에 이용되지 않는 것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는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업사회가 인간의 노동과 자본에 의해 물질 재화의 생산에 만족하였다

면, 정보화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정보를 중요한 경제재로서 파악하고 이의 생산, 가공, 저장, 처리뿐만 아니라 유한한 자원의 배분, 활용을 위한 생산 요소로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진전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수요의 고도화 및 다양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로 일컬어지는 사무자동화, 공장 자동화 등의 「산업의 정보화」, 홈 쇼핑, 홈 बैं킹 등의 「가정의 정보화」,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사회의 정보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보화가 파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사회